

2021학년도 일반논술 전형 인문논술 문제

【문제 1】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50점)

(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을 꺼리며 무리의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비굴한 웃음을 흘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말을 삶 속에서 깨우치게 되면서부터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무리를 짓는다. 모임을 만들고,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시간을 쪼개어 약속을 잡는다. 휴대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에는 우울해지고 나만 빼놓고 저희끼리 만나고 있을까 봐 걱정한다.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볼까 봐 차라리 굽기를 택하고, 결혼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 되어 줄 친구들이 없는 게 부끄러워 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사기도 한다.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가 곧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해진다. 그런 이들은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혼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기쁨과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동행 없이 홀로 산책을 하면 남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필요가 없다. 삶은 어차피 홀수이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 그 사실에 새삼 놀라거나 쓸쓸함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 충분한 자유를 흠뻑 느낄 수 있다면, 홀로 있을지언정 외톨이는 아닐 테니까.

(나)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 발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메게 한 것이다

몸에 한세상 떠 넣어 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며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며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짝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Buber, Martin)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나일까?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고 한다. 또 몸 전체의 뼈가 새로 바뀌는 데는 7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7년 전의 내가 내가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변했지만 그때의 '나'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것이 개인 동일성의 문제다.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사람의 몸, 곧 신체가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비록 사람은 시간에 따라 체격과 용모가 변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연속되어 있다면 동일한 개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걸모습을 보고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신체이론이다.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개인 동일성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다. 심리이론은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근거가 신체가 아니라 기억, 버릇, 느낌 따위의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본다. 심리이론도 신체이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기억이나 느낌이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개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작년의 일을 '나'가 모두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서로 다른 '나'가 있다. 제시문 (가), (나)의 '나'는 어떤 '나'인지를 각각 설명하고, 제시문 (다), (라)에서 '나'를 탐구하는 관점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나'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 (라)의 공통점과 (나), (다)의 공통점을 추출하고 각각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1,000자 내외)

[문항해설]

- 1) 제시문(가)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피로를 느끼는 '나'가 괴로워 하다가, 마침내 홀로 사는 일의 자유와 재미를 찾고 더 이상 사람들로 부터 상처받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 2) 제시문(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산문에 삽입된 황지우 시인의 시다. 이 시에는 혼자 쓸쓸히 라면을 먹는 나이 든 사내를 향한 서정적 화자의 동정과 연민, 동일시의 시선이 표현되어 있다.
- 3) 제시문(다)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철학적 탐구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 4) 제시문(라)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나는 왜 나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개인의 자기동일성을 탐구하는 여러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 5) 주어진 '문제'는 제시문(가)~(라)를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를 요구한다. 우선 제시문 (가), (나)는 문학작품에 해당하므로 '감상적 읽기' 능력이 요구된다. 제시문의 화자(서술자)의 감정과 정서적 태도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가의 능력을 묻고 있다. 제시문 (다), (라)는 진술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글에 나타난 방법, 태도, 관점 등의 차이를 찾아내는 비교, 비판, 추론적 읽기의 능력을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제시문을 '나'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가), (라)를 한 묶음으로, (나), (다)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할 때, 그 공통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이 추출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을 묻는다. 마지막으로,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어문규범을 잘 지키면서 논리적이고 맥락에 맞도록 '작문'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기준]

- * 배점 기준 : 어문규범 10점+ 내용 40점=50점
- * 어문규범 : 맞춤법, 띄어쓰기, 부호, 문장의 호응관계 등
- * 내용 : 문항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논리 전개 등(아래 사항 참조)

1) 최상(最上)

- ① 제시문 (가)의 '나'를 사람들 무리 속에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다가, 홀로된 자의 자유를 찾는, '변화하는 나'로 읽어냈을 때. 그 과정에서 자발적 고립, 소외, 고독, 자유, 개인, 사회 등의 어휘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설명하였을 때 (최근의 사회현상인 '혼밥', '혼술' 등과 연결하여 써도 좋음)
- ② 제시문 (나)의 '나'를 동정, 연민, 관심, 연대감, 동일시 등의 어휘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지닌 화자로 설명하였을 때. (가난, 차별, 소외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좋음)
- ③ 제시문 (다), (라)가 '나의 자기동일성'을 질문을 던진 후 그 대답을 구하는 철학적 탐구과정임을 적절히 제시하면서, 두 글의 탐구 과정에 나타난 태도가 '나'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는가, 아니면 오로지 '나'의 내부에서 구하는가로 크게 구분된다는 점을 답안에 정확히 서술했을 때. 즉 제시문 (다)는 '나'의 본질이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너' 혹은 타자의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야 하며, 관계를 통해서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비해 제시문 (라)가 같은 대답을 구해 나가는 과정은, 타자의 존재나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 몸(신체)의 연속성이나, 내가 가진 기억, 느낌 등의 심리적 연속성을 통해 동일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낸다.(자기동일성 이외에 정체성, 자아정체성, 주체성, 공동체, 연고적 자아 등의 용어를 적절히 사용해도 좋음)
- ④ 제시문 (가), (라)는 '나'와 '타자'의 공존, 관계, 상호개입보다는 '나' 자체에 집중하거나, '나'의 동일성에 '타자'의 존재나 조건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타자'가 '나'로부터 배제되거나 '나'의 존재를 탐구하는 데 불필요한 존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을 명시했을 때.(자기동일성 이외에 정체성, 자아정체성, 주체성 등의 용어를 적절히 사용해도 좋음)
- ⑤ 제시문 (나), (다)는 '나'의 삶에, '나'의 존재규명에 '타자'의 존재가 개입하거나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자'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나'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을 명시했을 때.(공동체, 연고적 자아 등의 개념을 사용해도 좋음)
- ⑥ 위의 ①~⑤의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와 개념, 명료하고 논리적인 문장, 그리고 어문규범을 정확히 지킨 답안.

2) 상(上)

위의 ①~⑥중 ⑥을 제외한 ①~⑤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을 때

3) 중상(中上)

①~⑤의 내용이 서술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할 때

4) 중하(中下)

①~⑤의 내용 중 답안에 전혀 쓰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썼더라도 엉뚱한 내용으로 작성했을 때

5) 하(下)

①~⑥중 어느 항목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작성한 논술문의 분량이 너무 적어 채점의 근거로 보기 어려울 때

【문제 2】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50점)

(가) GMO는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해 유전자 일부를 변형시켜 만든 생물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대부분 식물이기 때문에 GMO라고 하면 통상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리킨다. 1996년에 처음으로 상업화된 GMO는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인류의 식량 부족 및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학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식품 및 농업 정책 연구소가 발표한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미국에서만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GMO 작물 재배로 4백만 톤의 증산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14억 달러의 원가가 절감되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도 3만 톤이나 줄여 전체적인 경제 효과가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독일의 A사에서 나오는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영양성분이 강화되어 높은 농도의 아미노산과 지방성분,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동물 사료로 인기가 높다. 또 다국적 농업 회사인 B사에서는 병충해에 강한 목화 종자를 개발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이 목화 종자를 경작하면서 농약 사용량이 2.5배나 줄었다고 한다.

(나) 과학자가 현 단계에서 분명하지도 않은 미래의 윤리 문제를 걱정한다면, 현재 연구가 낳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과학의 특징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은 예측하기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1940~1950년대 생물학자들이 유전자의 구조가 이중 나선이라는 것을 밝혀냈을 때, 지금과 같은 바이오 혁명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다)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윤리적 책임이 커지는 이유는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서 비롯된 과학적 발견이 과학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이 선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조차도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예도 있다.

(라)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와 실험 결과가 인류의 복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또는 유해할 것인가를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 판단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을 가진다. 그 학문적 성과가 인류 복지에 이용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절멸과 범죄 행위에 악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마) 과학 기술이 도구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 본질을 드러내주는 표현은 아니다. 과학 기술은 이를 사용하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발달된 현대 기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부품으로 보게 한다.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된다.

(문제 2) 위 제시문 (나)~(마)를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두 입장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과학 기술의 사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1,000자 내외)

[문항해설]

[문제 2]는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제시문(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미래엔)에 실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이 글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기술의 상업화와 개발과 관련하여, GMO기술이 인류에게 제공한 다양한 혜택을 나열하고 있다.

제시문(나)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에 실린 홍성욱 저자의 “과학은 얼마나”라는 책의 내용을 재구성한 글이다. 이 글은 과학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므로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과학 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과학 기술의 발달은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과서)에 실린 과학 기술 발전에 있어 윤리적 책임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과학 기술 결과의 모호성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시대에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라)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2021 EBS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교재에 수록된 과학 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오픈하이머의 견해를 재구성한 글로, 과학적 발견 자체는 가치중립적 영역이며 그 자체로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학적 발견의 결과 활용과 관련된 책임은 과학자가 아니라 활용한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과서/비상교육)에 실린 하이데거(Heidegger, M)의 “기술과 전향”이라는 책의 내용을 재구성한 글이다. 이 글은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으로 고찰하여 무방비 상태가 된다면 인간이 오히려 과학 기술에 조종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위의 제시문 중 (나)와 (라)는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므로 가치판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더 나아가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시문 (다)와 (마)는 과학 기술의 발견과 활용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되며 바람직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학 기술의 파급력이 엄청나고 그 영향력이 인간과 자연, 현세대와 미래세대까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과학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 있어서 과학 기술자들은 윤리적 책임과 정당화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마)는 최근까지도 찬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글이다. 이러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제시문에 설명된 과학 기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평가기준]

1. 제시문 (나)와 (라)와 제시문 (다)와 (마)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가. 제시문 (나)와 (라)는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면서 과학 연구의 자유를 강조하는 지문임

나. 제시문 (다)와 (마)는 과학 기술에도 윤리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며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지문임

2. 제시문 (가)의 내용을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입장에서 GMO 관련 과학 기술의 사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서술함.

찬성하는 입장인 경우, 과학 기술의 연구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므로 해당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자유는 허용해야 함을 강조. 그러면서도 과학 기술의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장기적인 영향과 관련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단체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해해야함.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 과학 기술은 연구 목적의 설정, 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단계에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강조. 과학기술 사용과 개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함.

상상 : 1과 2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글이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작성됨

상중 : 1과 2의 요소들은 모두 포함하지만 내용 구성의 완성도가 다소 부족함

중상 : 1과 2의 요소들의 대부분을 잘 포함하고 있으며, 글이 체계적으로 작성됨

중하 : 1과 2의 요소들의 대부분을 잘 포함하지만, 글의 구성상 완성도가 다소 부족함

하 : 1과 2의 내용을 잘 담아내지 못함

추가 고려사항

반대하는 입장에서, 해당 과학 기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등의 기술혐오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제시문들에 나타난 과학 기술을 대하는 책임있는 태도와 거리가 있으므로 감점이 가능함.

비슷하게 찬성하는 입장에서, 과학 기술을 절대 선으로 보는 기술지상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제시문들에 나타난 과학 기술을 대하는 책임있는 태도와 거리가 있으므로 감점이 가능함.

양비론을 펼치는 답안은 문제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감점이 가능함.